

#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terior Architecture Space by Cognitive Concept

이상호\* / Lee, Sang-Ho  
 김태환\*\* / Kim, Tae-Hwan

### Abstract

Architecture should deviate from euclidean ideas of abstract space while helping to accommodate individual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a given space. Concepts for making space should be cognitively processed. The process of gathering information from the environment represents a new spatial concept as expressed in the cognitiv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 as the subject of architecture. Additionally, the cognitive experience of space is primarily perceived visually, and visual perception is the basis for information-gathering and decision-making.

Therefore architectu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eptual focus on the existing space design rules, being expressed instead in experimental architectural spaces connected to subjective human experience.

While som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topic regarding architecture, further study is required in the area of interior design. This study proposes the possibility of composing effective living space through an investigation of cognitive space concept theory and expression elements, and includes a case study of interior architectural spatial analysis.

키워드 : 인지적 공간, 공간이론, 실내공간론

### 1. 서론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3차원 구조인 인체가 그 자체만으로는 건축형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안다; 건축도 넓은 범위에서는 예술이며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추상적 시각 예술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는 3차원 구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억될 만한 지각이 인체에서 파생되며, 이러한 인식이 건물에 대한 공간 지각력을 대신할 수도 있음을 믿는다...”<sup>1)</sup>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다양한 공간개념의 존재는 건축을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건축에 대한 미적 사고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공간개념의 본질과 그 개념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자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식체계에 근거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과 시각의 제시가 힘들다. 더욱이 공간개념의 분석과 제시는 미적 직관과 관련하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건축이 인간의 환경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형태를 시각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함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중 건축이 근대의 추상화된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나 공간을 지각하는 개인의 체험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인지에 의한 공간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건축의 주체인 인간의 실존을 인간과 환경, 인간과 건축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공간 사용자의 인지구조에 따라 표현하는 공간개념으로 이러한 지각에 의한 공간개념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 수용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지각체험의 대부분은 시지각으로 인식되고, 정보의 취득과 사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기존의 공간적 질서만을 부각시키는 공간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정서가 연관되는 건축적 체험의 장으로서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건축외부의 표현경향에 대한 분석이 연구된 바 있으나,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김천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1) Charles Moore and Robert Yudell,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1977

인지적 공간개념의 이론과 표현요소들을 고찰하고, 실내건축공간에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인지적 공간개념

### 2.1. 공간인지 개념의 도입

공간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어 왔다. 행동과학자들의 경우, 인류학적인 의미에서 공간을 사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로서 정의하였으며, 회화에서는 2차원적인 표면상의 깊이와 구성된 전체로서 대상들의 관계 및 그 사이의 평면적 거리를 의미하였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공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sup>2)</sup>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간은 항상 내부 또는 둘러싸인 한정된 공간으로, 우리가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정하는 것을 인지할 때에만 존재하며 경계에 따라 지각된다. 즉 건물 내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 건물로 구획된 도시공간이나 자연 공간에 의해 둘러싸인 장소 등이 그것이다. 공간인지는 일련의 부분적인 지각의 결과로서 연속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상의 점 또는 위치 사이의 지각 가능한 관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간은 독립한 존재에 관한 현상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결과로서 이해된다.<sup>3)</sup>

공간은 활동하는 인간과는 달리 고정되어 있다. 유동적인 인간과 고정적인 공간은 그 성격이 상반되지만,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절대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왔다. 공간은 인간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소로 인간-공간-시간은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건축공간을 3차원적 확장으로 이해하고, 무형적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개념을 도입한 관찰자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체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공간의 본질과 성격을 인간-공간-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대적 의미를 내포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상호작용의 현상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분석과 해석을 다룸으로써 공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 2.2. 인지적 공간개념의 인식<sup>4)</sup>

현대건축이 장소성에 대한 존재론의 실존적 공간인식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건축공간의 인식과 표현경향은 공간적 질서만을 부각시키는 인간 정위의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의미론적 인식개념에 구속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정서가 간과되어서 건축공간이 건축적 체험의 객체적 대상으로 추상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공간인식에 대한 건축적 주체인 인간의 실존이 존재론적으로 가정된 것으로 출발하게 되면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인간과 세계, 인간과 환경, 인간과 건축을 대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 실존에 대한 한계와 반성을 위한 현대의 새로운 건축공간 인식과 그 표현개념이 요구되었고, 그것을 인지적 공간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적 공간개념은 건축의 인식과 표현의 문제에서 물리적 구성 요소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성을 공간사용자의 인지구조에 따라 표현하는 공간개념을 의미한다.

공간에 대한 제한된 일련의 환경적 특성들이 대상 상호간의 관계성에 기초한 관찰자의 인지구조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의미 지어지기 때문에, 건축공간의 형식관계와 표현은 인지적 경험의 범주를 시대와 문화, 사회 상황에 대한 관찰자의 주관적 의미와 함께 개관적인 맥락적 경험간에 연상되는 일종의 환경적 지각작용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지각작용은 건축가의 주관적 정서나 관념에서보다는 객관주의적인 경험미학에서 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공간에서의 인지적 개념은 사물의 존재 그대로 나타내려는 공간이나 공간의 탈허상화 모색을 목적으로 외부로의 확산에 관심을 둔 환경과의 관계로서 인식하는 공간개념으로서 건축형태와 환경과의 대상적 관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 건축공간의 대상적 관계성에 존재하는 공간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불명확성도 고려되어 환경적 지원성에 대한 인간 경험의 사회적 성격 또한 중시한다.

이를 위한 건축의 공간적 정보의 구성은 먼저 공간적 결절점(node)과 영역을 구성하고 이것을 통로(path)의 개념으로 서로 연결시켜 공간의 형상성으로 표현되며, 결절점 공간, 전이공간 등이 스케일이나 비례의 과장된 지각으로 표현되거나 공간의 특수한 분위기 조성 등으로 표현되는 경향이다.

<표 1> 인지적공간의 특징과 공간적 정보구성

인지적개념의 특징	공간적 정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과의 관계성</li> <li>· 지각의 연속성</li> <li>· 문맥주의적 인식개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절점의 인식</li> <li>· 통로개념의 표현</li> <li>· 미니멀적 표현</li> </ul>

특히 현대에는 미니멀리즘적 공간의 표현과 함께, 관찰자 스스로 환경적 공간을 지각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초월론적으로 인식하게되는 명증(明證)의 공간으로서 시각적 위치, 장소성을 표현한다.

또한, 환경적 층구조로 확장된 자율적인 위상공간 표현이나 장소적 의미의 현상학적 실존공간의 의미에 중점한 표현개념이기도 하다. 객관화된 경험적 인식표현에서 벗어나면 관찰자 자신의 주관적

2) Tim McGinty,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정영수 역, 세진사, 1997, pp.48-49

3) 문소현, 주거의 공간적 이중구조 표현을 위한 중첩의 적용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6

4) 이용재, 건축공간의 비화적 인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8, pp.115-117에서 요약.

인 지각의 연속성개념을 따르게 되어 반복 이미지의 연상적 구심공간이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학적인 인식의 건축공간 개념으로는 주로 의미에 집중한 의미론적 인식개념과 주관주의의 초월적 다양성의 정보이론적 인식개념을 가지는 객관적 표현의 경험미학과 함께 주관주의적 사변미학의 인식개념으로는 반복 이미지의 연상적 공간이라는 문맥주의적 인식개념이 특징적으로 표현된다.

### 2.3. 인지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

#### (1) 구체적 변화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간실존 표현에 중점

근대화, 현대화로 이어지는 물질문명의 이질과, 전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정신적 문화와의 갈등, 합리성에 의한 인간 삶의 진솔한 감각, 지각의 상실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는 문제들이다. 모더니즘이 주창된 이후 전성기를 거치면서 합리화된 기능주의는 세계의 모든 건축을 획일화하여 합리성의 명목아래 여유가 없는 공간을 초래하였다. 이런 도시적, 문화적 혼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적 공간개념은 권위주의에 입각한 비인간적 공간, 즉 기능주의를 부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 인지의 객관성을 위한 환경과의 대상적 관계성

인간이 물리적인 환경을 지각, 인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요소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 혹은 의미를 주는 요소, 연속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상의 점 또는 위치 등을 기억하게된다.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기억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되는 경우는 곧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의 이미지는 관찰자와 환경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개인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현재의 지각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정보를 해석하여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된다. 때문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인식하고 그것에 패턴을 부여하는 것은 환경이미지가 커다란 표피계로서 인간의 행동, 사고, 지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3) 건축공간과 인간 상호간에 설정되는 명료와 불명확성

건축공간은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인간 생활과는 달리 고정시켜 공간을 성립시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신체와 사는 장소의 상호작용은 상반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간 없는 공간은 무의미하고 공간 없는 인간은 존재의 문제가 되는 절대적인 결합관계를 가진다. 인간과 공간이 갖는 공간성은 인간이 물질과 기술을 구사하여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객관성과 주관성의 개념을 잘 융화시켜 인간과 공간을 일체화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 (4) 장소와 풍토의 교감적 인식

인지적 공간개념에 있어 풍토성에 바탕을 두고 벽을 대상으로 강한 모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이나 지형학에(Topology)에 바탕을 두고, 음영의 역할을 강조하여 표현을 하는 것은 중요한 표현 방법이다. 이는 공간인지에서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고, 공간의 탈 허상화

를 목적으로 환경과의 관계를 관찰자 스스로가 공간을 지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적 기후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다든지 경관의 거리감을 전경(前景), 중경(中景), 원경(遠景)을 만드는 벽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인지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을 기초로 실내공간의 인지적 공간정보의 구성을 환경과의 관계성, 공간과 인간과의 대상적 관계성의 표현을 위한 형태구성, 환경적 지각작용과 체험을 위한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의 정보구성을 전개한다.

## 3. 실내공간의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공간정보 구성

### 3.1. 환경과의 관계성 구축

#### (1) 인간과의 관계성

인간이 환경을 접할 때 그 환경을 자기와 분리해서 어떤 구조적 모형을 통해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스스로 환경의 한 부분으로서 환경을 체험하려는 실존적 태도를 취한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현상으로서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환경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반이자 지지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며,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 발전 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삶으로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실내공간과의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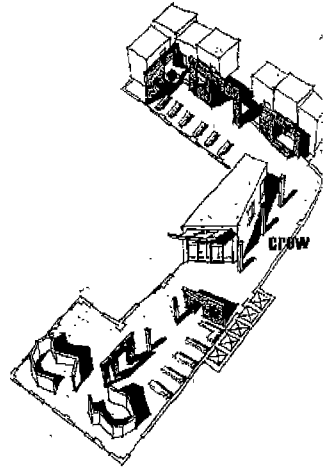
인지적 공간개념은 건축가의 주관적 정서나 관념을 배제한, 사물의 존재 그대로 나타내려는 공간이나 공간의 탈허상화 모색을 목적으로 외부로의 확산에 관심을 둔 환경과의 관계로서 인식하는 공간이다. 관찰자 스스로 환경적 공간을 지각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 공간을 통해 시각적 위치, 장소성을 표현한다.5) 실제로 실내공간에서의 환경과의 관계성 구축은 외부공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외부공간이 외부환경으로의 확산에 관심을 둔다면, 실내공간은 외부환경을 안으로 끌어들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가변화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작용에 의한 메타포(Metaphor)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재적 상징의 은유와 공시적 표현의 심층적 공간개념6)이나, 컨텍스츄얼리즘(Contextualism)과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메타포에 의한 '구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구조는 '내용'을 산출한다.7) 공간에 펼쳐진 구조들은 관찰자의 지각과 감성

5)이용재·윤도근, 미학적 공간인식에 따른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p.28

6)심층적 공간개념은 공간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공간의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특성을 중시하여 인과법칙의 기능과 대립되는 심층적인 의미의 추상적이고, 개념화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공간개념을 의미한다. 지각의 연속성개념에 따르는 문맥주의적 인식개념이나 반복이미지의 연상적 구심공간 등이 인지적 공간개념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이용재, Op. Cit., pp.113-114

7)문선옥, 공간디자인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영화구조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p.45

을 통해 의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과 암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간의 내용, 리얼리티와 환상의 무의식적인 상호작용 사이에서 관찰자와 공간의 상호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림 1,2>는 실내공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1> 뉴욕의 CrewCuts Film and Tape사를 위한 디자인으로 Wormser+Associates가 설계한 것이다. 주 고객이 재즈연주자들이 이 회사를 위해 복잡한 도시 속에서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부도심을 실내에 도입한 것으로 도시의 번두리의 느낌을 주기 위한 계단, 선구성의 나무패널의 벽, 거리의 벤치, 레벨차이에 의한 집들의 표현 등을 나타낸다.

<그림 2> CrewCuts Film and Tape사의 내부 스케치로 거리의 표현에 의한 실내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환경을 내부로 이끄는 관찰자와 공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공간계획이다.

### (3) 환경과의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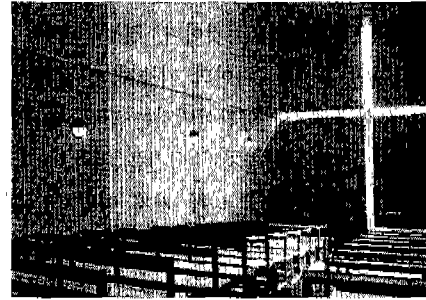
#### ① 빛과 창 의 상관성

환경과의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빛과 창에 관한 것이다. 창은 빛을 내부로 이끌며 주변환경과 내부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 의 역할을 한다. “건축체는 빛을 주고, 빛은 공간을 준다.”<sup>9)</sup> 빛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며, 마찬가지로 공간에게도 본질적인 것이다. 빛은 실내에서 공간과 형태를 비추기 위한 조건이며, 창이나 지붕의 천장을 통해 들어간 빛은 방의 표면을 분절시키고, 그것의 색을 활기 있게 만들며, 질감을 드러낸다. 창 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의 풍경을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창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초점과 방향성으로, 창문은 그 위치에 따라 훌륭한 조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한다. 작은 창은 벽에 그림이 걸려있는 듯 한 느낌을 주고, 큰 창은 원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하며, 사람을 풍경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즉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배경이 되고 공간을 장악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② 빛과 공간의 상관성

빛을 공간에 적용한 대표적인 건축가로 안도(T. Ando)는 공간의

본질을 빛과의 관계로 파악하려 했다.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빛은 가장 중요한 건축언어 중의 하나이며, 자연이 지니는 인간에 대한 초월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빛이라는 자연의 소재를 추상화하여 공간을 만들며, 단순하고 무기력한 공간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게 하는 복잡성을 추구하고, 빛의 교회(光の教會, 1989) <그림 3>에서 보여지듯 작은 공간을 십자가를 통한 강렬한 빛의 연



<그림 3> 빛의 교회(光の教會), T. Ando, 1989

출로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게 유도하고 있다. 이는 빛이 재질의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주어진 공간을 팽창시키는 다양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sup>10)</sup> 창문이나 지붕의 천장을 통해 실내로 들어간 빛은 방의 표면을 분절시키고, 그것의 색을 활기 있게 만들며 질감을 드러낸다. 음영의 변화 패턴을 만드는 태양은 실내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실내공간의 형태를 분절시킨다. 빛은 실내에서 분포상태를 조절함으로써 공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 있다. 빛은 강도와 방향이 항상 일정하므로 실제적으로 실내의 표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공간 내에 있는 창문이나 천장의 위치, 규모, 방향성 등이 있다.

## 3.2. 공간적 결절점의 구성

### (1) 결절점 인식

인지적 공간개념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 경향은 결절점(node)의 구성과 이것을 통로의 개념으로 연결하여 공간의 형상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sup>11)</sup> “거리는 방이다. 즉, 합의된 공동체의 방이다. 거리의 성격은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고 수많은 방의 연속으로 여겨질 것이다.”<sup>12)</sup> 이것은 건축의 인식과 표현의 문제에서 형성된 관계성을 공간사용자의 인지구조 즉, 환경적 지각작용은 건축형태와 환경과의 대상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간적 결절점과 격자는 과거로부터 도처에 많이 만들어져 왔지만 똑같이 균일한 형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길의 모퉁이는 다르다.” 미국의 건축가인 데니스 스콧 브라운(Denis Scott

10)박길동 外, 현대 일본건축에 있어서 일본성, 도서출판 동방, 1998, pp.86-88

11)이용재, Op.Cit.,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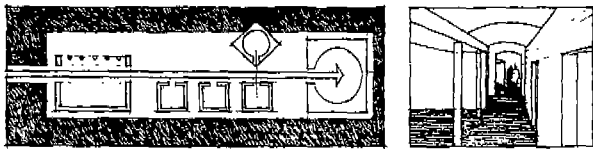
12)“A street is a room ; a community room by agreement. It's character from intersection to intersection changes and may be regarded as a number of rooms.” : 루이스 I 칸의 1971년에 그린 “거리는 방이다”의 스케치 중에서 인용

8)Wormser+Associates, Interior Design, 1996.5, pp.176-181

9)“Structure gives light makes space.” 루이스 I 칸의 빛에 대한 스케치, 香山壽夫,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도서출판국제, 1998, p72

Brown)은 격자 및 결절점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길모퉁이는 그 자체가 중심이 되며, 그 곳에서 공간을 인식하고 찾아내며 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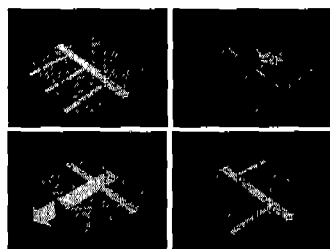
통로의 결절점은 항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로 교차하는 각 통로의 연속성과 크기로서 사람들은 주요 공간으로 가는 주 통로와 기타 공간으로 가는 부 통로를 식별한다. 교차하는 통로가 서로 동등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방향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결절점과 통로의 형태나 치수는 산책공간, 개인 홀, 복도사이의 기능적, 상징적 구분을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서의 공간이미지는 단순히 결절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찰자가 공간을 지각할 때 통로, 가장자리, 영역, 결절점, 공간상징물의 다섯 가지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중 결절점은 계단의 시작부분, 엘리베이터 홀, 로비 홀 등의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강하게 형성된다.<sup>14)</sup>



<그림 4>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1997, 통로와 공간과의 관계-모서리, 결절점 및 통로의 종착지점.

(2)결절점 구성

결절점은 도시경관이나 공간 내부에 있는 주요지점으로 관찰자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으로 향하거나 출발하는 강한 접합점이다. 이 접합점은 특별한 기능이나 물리적인 성격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며, 접합점을 지각시킬 기반이 되는 장소의 벽과 바닥, 디테일, 조명, 식물, 지형, 스카이라인 등이 특이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이들을 하나의 '테마'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5)</sup> 공간구조에 대한 확실한 지각을 위해서



<그림 5>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1997, Node의 형성을 재구성

결합지점이 접합점과 일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접합점에 접근하고, 어디에 분기점이 있으며, 어떻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접합점이 자체적으로 지역적인 방향성을 가진다면 그것을 보다 큰 방향체계와 연결시켜야 한다.

13)香山壽夫, Op. Cit., p.68

14)임채진·차소란, 사동선 환경에 관한 기초적 연구(I),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pp.184-185

15)육서영, 실내경관 이미지형성의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p.25-29

이러한 접합점은 도시경관의 경우, 시가지의 중요한 지점이나 공원, 도로의 접합점, 광장이나 역, 로터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실내공간에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지만 각 공간을 연결해 주는 중앙홀이나 방향이 꺾이는 계단참의 확장영역 등이 해당되며, 공간내에 접합점이 많을수록 공간의 질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면 중 하나가 형태나 색깔, 질감 등의 변화로 다른 면과 구별되면, 공간흐름에 직교하는 2차 축이 이 공간 안에 생겨나게 된다. 또한 한쪽면 또는 양쪽이 열린 개구부가 2차 축을 유도하며, 내부에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결절점의 기초가 된다.

3.3. 통로의 개념에 의한 공간의 형상성 표현

(1) 시간의 연속성 개념과 벽의 표현

시간에 대한 인식의 출발로부터 우리는 공간의 체험을 경험한다.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위치와 내가 어디로 진행할 것인가를 인식하게되며, 통로는 바로 공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체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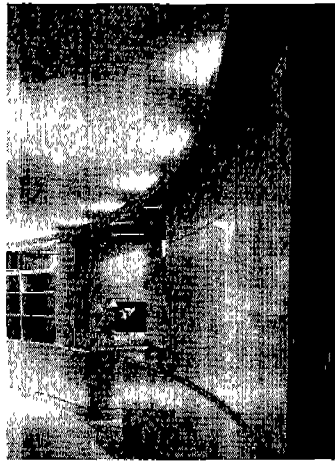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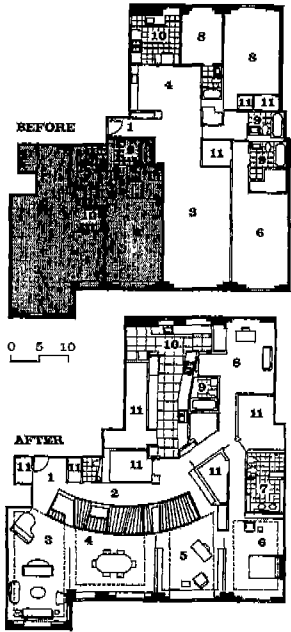
통로의 구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건의 이동에 있어서 선형을 취하며, 모든 통로는 출발점이 존재하여 연속된 공간을 통해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지각작용의 과정인 것이다. 공간과 통로와의 선적인 구성은 본질적으로 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평면의 다양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 선형에 의한 통로와 공간구성은 이동에 따른 시선과 시간의 변화를 부여하므로 다이내믹한 공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통로를 통하여 공간의 형상성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다양한 벽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벽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것은 과거의 특정한 기능을 한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성격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건축적 용도가 주어지지 않은 자율적인 위상공간의 표현으로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건축에서 보여온 벽의 영역한정과 용도구분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과 크기로 사용되어졌던 벽의 역할이 더 이상 공간적 질서만을 부각시키는 표현경향에서 탈피하여, 도시를 향한 새로운 표피를 만들고, 내·외부의 다양화를 위해서 벽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해야한다. 유도벽, 전이벽, 중첩된벽, 건물과 일체화된 프레임의 사용 등 구조 및 기능과는 무관한 벽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에는 버려졌던 공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전이적 영역의 창조를 통하여 공간을 연결하는 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sup>16)</sup>

<그림 6,7>은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공간표현의 예로서 1996년에 루이스 브레이버맨(Louise Braverman)에 의해 설계된 주거의 평면이다.<sup>17)</sup>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맨하튼의 아파트 평면으로 시간에 대한 인식,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내에서 시간의 길이를 생각한 디자인이다. 통로를 통해 공간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자 곡

16)손세관, 좋은 주택을 위한 설계 방법론, 플러스 129호, 1998.1, p.93

17)Judith Nasatir, Louise Braverman, Interior Design, August 1996, pp.108-111



<그림 7> 루이스 브레이버맨(Louise Braverman)에 의한 뉴욕 센트럴파크의 아파트 내부의 만곡의 벽으로 이루어진 통로의 모습

<그림 6> 개조 전과 후의 평면

면의 벽을 사용하여 출입구로부터 작은 침실에 이르는 주 동선을 계획하고, 각 실의 출입은 오픈 그리드를 교차하는 공간의 결절점을 이용하여 진입하도록 하였다. 평면의 형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만곡의 벽으로부터 발산되는 통로공간의 힘은 내부 전체의 느낌을 통일하고 있으며, 센트럴 파크와 면한 방들과의 연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벽의 정면은 또한 고객의 작은 소품들을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만곡의 장은 다양한 자연과 예술품의 파노라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로를 통하여 공간의 형상성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앞서 밝혔듯이 다양한 벽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브레이버맨은 성격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건축적 용도가 주어지지 않은 자율적인 위상공간의 표현으로서 만곡의 벽을 이용했다. 객관적인 시각의 연속성 개념에 의해 건물내의 전체통로를 구성하고, 외부환경과의 조망을 위한 유도의 수단으로 벽을 사용했으며, 각 공간으로의 접근을 위해 다양한 교차점을 구성하여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한 것이다. 동시에 문은 기존의 여단이 대신에 없거나, 슬라이딩도어를 채택하여 공간의 흐름을 최대한 보장하고, 벽의 상부에 단의 차이를 두거나 유리패널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쉽게 인지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2) 통로의 공간구성 정보

통로에 의한 공간의 형상성은 공간들의 구조적 패턴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공생관계이다. 통로의 구성을 평행패턴으로 하면 공간의 구성을 강화할 수 있거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 형태와 대조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만일 관찰자가 시각의 연속성의 개념에 의해 건물 내의 전체통로의 구성을 마음 속으로 그려 볼 수 있다면, 건물 내에서의 방향감각과 그 공간배치에 대한 이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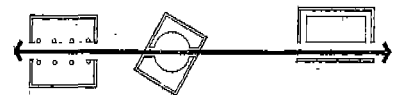
분명해 질 것이다. 통로는 기능적 연결이라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연결된 복도와 같은 것이지만, 순환공간의 형태 및 통로를 시간의 연속성 개념으로 인지한다면 거닐거나 멈추어 서서 감상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등의 행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음은 통로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 통로와 공간의 형상성을 위해 어떻게 경계를 한정하는가
- 통로의 형태를 그것이 연결해 주는 공간 형태와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 통로의 크기와 비례, 조명, 주변환경, 조망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출입구와 통로의 목적지를 어떻게 계획하는가
- 레벨의 차이와 계단의 높이에 의한 높이 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이다.

통로와 공간사이의 형상성 표현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통로와 공간의 연결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한다.

통로가 공간의 옆을 지나는 가로형 구성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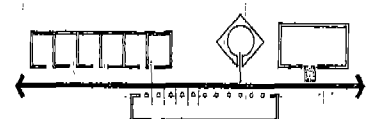
- 각 공간 본래의 모습이 유지된다.
- 통로의 구성에 융통성이 있다.
- 통로와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림 8>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1997, 적극적 연결방식

공간을 관통하는 통로의 적극적 연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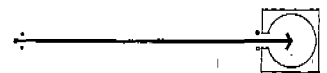
- 통로가 공간의 축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혹은 모서리를 따라 설치될 수 있다.
- 공간을 절단함으로써, 통로는 공간 내부에 정적, 동적 패턴을 동시에 창출한다.



<그림 9>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1997, 가로형 구성방식

통로가 목적지에 의한 공간에 종착되는 구심공간연결방식

- 공간의 위치에 따라 통로가 결정된다.
- 이와 같은 통로와 공간의 관계는 기능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공간에서의 접근, 진입 시 사용된다.



<그림 10>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1997, 구심공간 연결방식

## 4. 결론

공간이란 인간의 보호와 근원적 활동을 에워싸는 환경의 실제적 창조물이며, 이러한 공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서의 인간의 행위와 심리활동 속에서 존재의 중요성이 있으며, 인간의 인지에 의해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공간 표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환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현상으로서 보는 환경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내·외부 공간의 기능적 가변화 공간뿐만 아니라, 관찰자와 공간의 상호관계가 구축되는 컨텍스츄얼리즘이나 메타포의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빛과 창 의 상관성을 통하여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실내 공간의 형상성 표현에 있어서 결절점의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식별하고, 사고하게 하는 요소로, '테마'에 의한 통일성의 표현이나 방향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셋째, 결절점의 구성으로부터 연결되는 통로에 의한 공간의 형상성 표현은 시간에 대한 연속성의 표현과 벽에서의 다양한 표현으로 성격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인 위상공간을 형상화한다.

넷째, 공간을 한정하는 요소로서 반복과 여백을 사용하며, 이것은 미니멀적인 특징인 전체성 추구로부터 공간적 확장과 환경적 상황을 이용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1. Charles Moore and Robert Yudell,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1977
2. Tim McGinty,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정영수 역, 세진사, 1997
3. 문소현, 주거의 공간적 이중구조 표현을 위한 중첩의 적용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4. 이용재,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8
5. 이용재·윤도근, 미학적 공간인식에 따른 건축공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6. 문선욱, 공간디자인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영화구조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7. Wormser+Associates, *Interior Design*, 1996.5
- 8.香山壽夫,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도서출판국제, 1998
9. 박길룡 외, 현대 일본건축에 있어서 일본성, 도서출판 동방, 1993
10. 임채진·차소란, 시동선 환경에 관한 기초적 연구(I),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16호, 1998.9
11. 육서영, 실내경관 이미지형성의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12. 손세관, 좋은 주택을 위한 설계 방법론, 플러스 129호, 1998.1
13. Judith Nasatir, Louise Braverman, *Interior Design*, August 1996
14. Francis D.K.Ching, *Architecture-Form, Space, and Order*, 황연숙 역, 도서출판국제, 1997

<접수 : 2000. 5. 11>